

사진기사의 판지

엄마 나도 보여줘!



엄마 품에 안긴 컷이 아이가 바둥거리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눈 요깃거리가 생겼나 봅니다. 엄마 손에 들린 사진기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다가 눈. 만져보고 싶은데 말은 못하고 다리만 흔들며 애먼 고개만 올립니다. 최근 화순초등학교에서 학예발표회를 한다고 해 '꺼리'를 찾아 나섰다가 엄마의 디지털 카메라를 쫓는 아이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아이 시선을 따라 카메라를 들어봤습니다. 카메라를 잡은 엄마 손도 올라가네요. 이 시기 아이들, 손에 잡히는 것은 뭐든지 장난감으로 만들어 버리는 재주가 있지요. 카메라 뿐입니다. 휴대전화, 디지털 캠코더 등 작지만 비싼 디지털 기기가 장난감으로 바뀌는 것, 순간입니다. 던지고 부수고 뜯어버립니다. 입을 갖다 대 침으로 흠뻑 적셔놓기도 하지요. 물론 아이가 귀중한 물건 만지다 망가뜨리면 화도 나죠. 그래도 얼굴 찌푸리는 부모들, 별로 없습니다. 아이의 체근을 모르는 척 하던 엄마, 결국 사진을 보여 줍니다. 그리고 한 마디 하더군요. "야, 사진 보라. 누나 잘 나왔네". 아이의 호기심 해결됐을까요.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오늘의 유머

■ 천당에 가려면
"만약 내가 집과 자동차를 팔아서 그 돈을 몽땅 교회에 준다면 천당에 가게 될까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다.
"아뇨!" 라고 아이들은 일제히 대답했다.
"만약 내가 매일같이 교회 청소를 한다면 천당에 가게 될까요?"
아이들의 대답은 역시 "노!"였다.
"그럼 내가 동물들에게 잘해주면 천당에 가게 되는 걸까요?"
"아뇨!"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천당에 갈 수 있는 거죠?"
다섯 살 된 녀석이 소리쳤다.
"죽어야죠"

■ 엄마의 건강증
1. 전화가 온다.
엄마는 실컷 수다를 떠다. 그 순간 아차차.
"애, 잠깐만 기다려, 가스불 끄고 올게."
엄마는 자신의 영민함에 뿌듯해 하며 가스불을 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하던 김장 30포기를 마저 담근다.
엄마는 그렇게 또 한 명의 친구를 간단히 잃어버렸다.
2. 엄마가 오레간만에 미장원에 갔다. 주인이 반긴다.
"정말 오래간만에네.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네, 덕분에, 오늘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머리 손질 좀 빨리 해주시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30분 안에는 완성해 주세요"
"30분 안이에요? 네, 알겠어요"
한참 손질하던 주인 일,
"이왕 오신거, 머리를 마는게 어때요? 훨씬 보기 좋을텐데."
보기 좋다는 소리에 솔깃한 엄마, 그렇게 엄마는 머리를 맡았다. 꼭 3시간 걸렸다. 그후 엄마는 누나의 결혼식을 비디오로 봐야 했다.

■ 절묘한 타이밍
교회에서 목사의 설교 때마다 꾸벅꾸벅 조는 남편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아내, 궁리끝에 바늘을 준비해서 교회에 갔다.
아니나 다를까 목사의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는 남편.
목사 : 이 세상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아내는 준비해 간 바늘로 졸고 있는 남편을 콕 찌렀다.
남편 : 오! 하나님!
목사 : 네, 그렇습니다.
아내 목사의 설교는 계속되고
목사 :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시지요?
꾸벅꾸벅,
열심히 졸고 있는 남편을 다시 한번 콕 찌렀다.
남편 : 앗! 하나님!
목사 : 네~ 맞습니다.
그럼 아담과 이브 사이에 99명의 자손을 두고 이브가 아담에게 뭐라고 했지요?
계속 꾸벅꾸벅 졸고 있는 남편을 다시 한 번 콕 찌르는 아내.
하늘을 놀리며 잠이 깬 남편, 아내가 계속 찌러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서
"아! 너 자꾸 그 물건으로 찌러대면 확 부러뜨린다!"

■ 물 주세요
어느날 오후, 방에 놀아주던 아들은 시원한 물이 먹고 싶어졌다.
그러나 깜짝 하기도 싫은 아들은 거실에서 TV 보고 계시던 아빠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냉장고에 있으니까 내가 갖다 먹으렴."
처음에 아빠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러나 5분 후,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네가 직접 가서 마시라니까!"
아빠의 목소리는 짜증 섞인 투로 툐이 높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아들은 또다시 5분 후,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가져다 먹어! 한 번만 더 부르면 혼내 주러 간다!"
아빠는 이제 화가 나신 것 같았다.
그러나 아들은 지칠 줄 모르고, 다시 5분 후에,
"아빠, 저 혼내 주러 오실 때 물 좀 갖다 주세요!"

뉴스퀴즈

88. 지난 1990년대 한국 대중음악사에 한 획을 그었던 이 가수가 마침내 가요계에 복귀합니다. (주)에당엔터테인먼트는 최근 "15주년 기념 음반을 29일 발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2년 데뷔해 '난 알아요'를 시작으로 '컴백홀' 등을 잇따라 히트시키면서 1990년대 대중 문화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이름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①서태지 ②조용필 ③남진 ④나훈아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 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상전자 고급 진공송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6일(음 9월 27일 甲戌)

36년생 태에 의한 사인과 손재가 우려 된다. 48년생 헛 문자로 눈물이 걱정된다. 60년생 과욕과 어리석은 짓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좋으리라. 72년생 재사가 손조롭게 활성화되리라. 84년생 애기치 못한 억울함이 손실은 있다. 행운의 숫자 : 03, 43

37년생 침착하게 서행하라. 49년생 주변이 잘 되면서도 어수선하다. 61년생 부부 및 주변으로부터 새로운 길사가 계속된다. 73년생 결과가 의중처럼 좋은 하루다. 85년생 음함함 뜻한 주변이 대고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1, 44

38년생 총의 불연사가 발생한다. 50년생 가정과 배인의 불연사가 발생할 수 있고 사기가 걱정된다. 62년생 부부사이에 얼굴 불합의 일이 많을 수도 있다. 74년생 백사가 손조롭다. 행운의 숫자 : 04, 35

39년생 비정한 괴로움이 측근에서 발생될 우려가 있다. 51년생 사회활동을 불편하게 할 주변인이 다가 오니 조심하라. 63년생 부부간 할애 받고 대화해야 하리라. 75년생 신체 속에 살라도 부다. 행운의 숫자 : 10, 38

40년생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때. 52년생 중인의 잘못으로 그림자가 나에게 전가되는 형상이다. 64년생 사기꾼이 주변에 맴돈다. 76년생 내 것 잃고 송사 당할 수도 있으니 인정을 배려하라. 행운의 숫자 : 21, 16

41년생 스스로 자과하는 격이요. 53년생 가세가 시끄럽고 어수선한 형상이 발생한다. 65년생 애인과 이성교제가 있을 수도. 77년생 특별한 협조와 좋은 인연이 기대되고 있다. 행운의 숫자 : 05, 43

42년생 부부사이에 불협음이 나타날 수도 있다. 54년생 신명과 중도를 살려가며 매사에 신중함이 있어야. 66년생 실물 사기 도난의 손재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78년생 밝은 웃음으로 주변을 편하게 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7, 27

43년생 대박전을 약속하고 가속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는다. 55년생 큰 뜻은 좋은 마무리에 있다. 67년생 확실치 않은 투자는 삼가야 하리라. 79년생 혼분리에도 과욕하면 결과는 대손해로 나타난다. 행운의 숫자 : 12, 28

44년생 용이 여의주를 놓고 싸우는 형상이 스스로 패한다. 56년생 하루를 조심조심 보내라. 68년생 시비 송사 구설 분쟁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80년생 과욕만큼 잃을 수 있는 손재수가 있다. 행운의 숫자 : 11, 31

45년생 송사가 생겨도 승전으로 연결된다. 57년생 겨울겨우 보내는 날이 될 수도 있으니 활동하라. 69년생 희비가 뒤따라니 하루나 선택을 심사숙고하라. 81년생 매사에 조심을 다해도 불만스럽게 꼬일 수도. 행운의 숫자 : 09, 33

46년생 문서 직업으로 인해 대고역이 중중해서 심신까지 불안하다. 58년생 무리수를 허더리고 과감하게 진행하라. 70년생 중인이 나타나서 사건을 가르쳐 준다. 82년생 재사가 지체되고 결과를 얻지 못한다. 행운의 숫자 : 08,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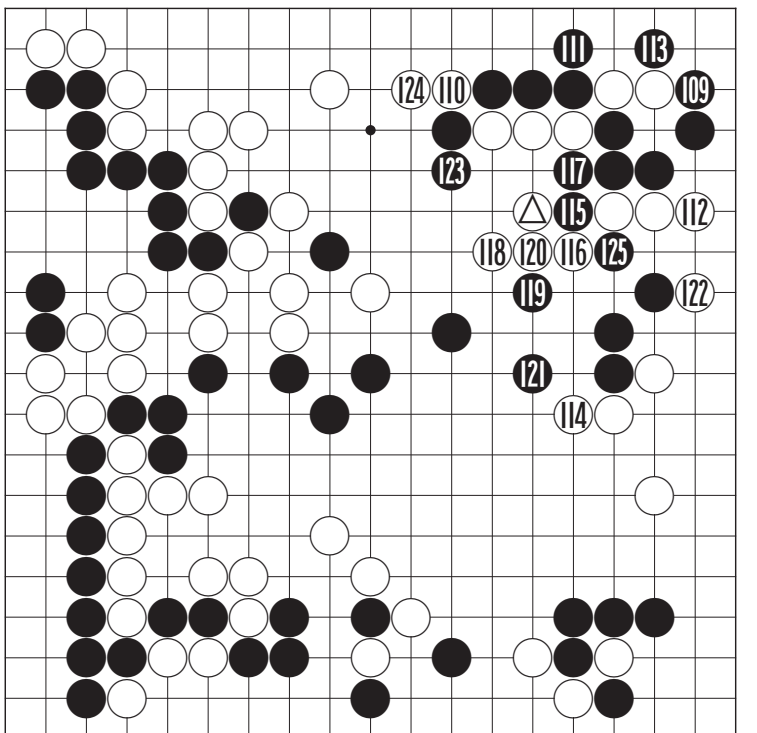
47년생 길사에 침체될 우려는 있으나 안정된다. 59년생 신사 투자에 손재가 크니 신중하게 속고하라. 71년생 친구 친척 간에 호사다마가 있게 되니 조심해야 하리라. 83년생 전화위복이니 변으로 길사가 전개된다. 행운의 숫자 : 14, 42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광주시 바둑협회 최강배 바둑대회

최강부 결승전

백 삼재욱 6단 흑 선계성 6단



백 삼재욱 6단의 혼투기가 먹혀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흑 109로 귀를 잡을 수밖에 없을 때 삼재욱 6단은 다시 110으로 끊어 손바람을 냈는데 이 수가 종대한 수순착오로 이제까지의 수고를 한번에 날려버릴 뻔 했다. 이 수는 112에 먼저 내리는 수가 바른 수순으로 그

러면 실전과 똑같이 된다. 실전은 110으로 먼저 끊었기 때문에 흑 113은 생략해도 되었다. 지금은 '참고도'의 흑 1로 찌는 것이 천하의 요소로 무조건 이곳을 두어야 했다. 우상귀는 백 2로 찌혀오더라도 3으로 끊는 수가 좋아서 7까지 수가 안된다. 백 114가 너무나도 빛나는 한수가 되었다. 이것으로 백의 넓이에는 모두 사라지고 겨우로 중앙 흑대마가 갑자기 허술해졌다. 흑 123도 그냥 124로 잡을 곳. 흑 125가 안간힘을 다한 절단인데...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신성건설, 포스트 시즌 진출

서울 신성건설이 한국바둑리그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다. 신성건설은 지난 3일 열린 한국바둑리그 13라운드 4경기에서 경북 월드메르디앙을 3-0으로 꺾고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지었다. 서울 신성건설은 대구 영남일보, 울산 디아체에 이어 3번째 포스트시즌 진출팀이 됐다. 전날 홍성지가 이재웅을 꺾음에 따라 1-0으로 리드하던 신성건설은 이날 조한승·목진석 9단이 승리를 따내면서 완승을 거뒀다. 바둑리그 최종 라운드는 7일 월드메르디앙과 한게임의 대국으로 속개된다. 우승 상금 2억5천만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굿모닝 잉글리쉬 <1027>

Are you ready to order?

주문하시겠습니까?

A : Are you ready to order?
B : Yes, we would like to have the seafood spaghetti and garlic chicken.
A : Is that all?
B : Yes.

A : 주문하시겠습니까?
B : 네, 저희는 해물스파게티와 마늘양념이 들어간 치킨을 먹고 싶습니다.
A : 그러면 됐습니까?
B : 네

* Are you ready to order?
= Would you like to drink?
= can you order now?
* I would like to have ~ : ~이 먹고 싶습니다. ~주세요.
= I want to order ~ = I'm going to have ~.
* seafood : 해물
* garlic : 마늘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오우 니혼고 <1027>

お手伝(てつだ)いしましょうか。

도와 드릴까요?

A : 年末(ねんまつ)が近(ちか)づくこと、なんとなく気忙(きせわ)しいですね。
B : そうですね。私は仕事(しごと)が山(やま)のようにあって、本当(ほんとう)に猫(ねこ)の手(て)も借(か)りたくらい忙(しそか)しいんです。
A : それは大変(たいへん)ですね。お手伝(てつだ)いしましょうか。
B : えっ、本当(ほんとう)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A : 연말이 다가오면 어쩐지 어수선하군요.
B : 그래요. 전 일이 산처럼 많아서 정말로 고양이 손도 빌리고 싶을 정도로 바쁩니다.
A : 그거 큰일이에요. 도와 드릴까요?
B : 어, 진짜로? 고맙습니다!

近(ちか)づく : 다가오다, 접근하다
なんとなく : 왠지 모르게, 어쩐지
気忙(きせわ)しい : 어수선하고 부산하다
手伝(てつだ)いする : 도와주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쑹구위 <4>

你身体好吗?

건강하시죠?

A: 老师, 您好!
Lǎoshī, nǐ hǎo!
리오토, 님 하오!
B: 你好!
Nǐ hǎo!
니 하오!
A: 您身体好吗?
Nín shēntǐ hǎo ma?
넌 신체 하오 마?
B: 很好, 你呢?
Hěn hǎo, nǐ ne?
헝 하오, 니 네?
A: 선생님, 안녕하세요!
B: 안녕!
A: 건강하시죠?
B: 건강하답니다, 넌?

老师 [Lǎoshī] 선생님
身体 [Shēntǐ] 몸, 신체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앞)>
☎ 383-1605

한자 이야기 <644>

無病自灸(무병자구)

없을 무, 병 병, 스스로 자, 뜸질할 구

무병자구(無病自灸)는 병도 없는데 스스로 뜸질을 한다는 뜻으로, 불필요한 노력을 하여 정력을 낭비하는, 이른바 '굳어 부스럼'과 같은 말이다. 이 말은 장자(莊子)가 공자(孔子)를 비판하기 위하여 만든 이야기에서 나온다. 공자의 친구 유하계(柳下季)에게는 천하의 큰 도자라고 불리는 도척이라는 동생이 있었다. 도척은 수천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온갖 잔인하고 포악한 짓을 자행하였다. 공자는 그것을 유하계의 수처일 뿐 아니라 인의와 도덕을 가르치는 자신의 수처라고 생각하여 도척을 설득하려 찾아갔다. 여러 번 간청 끝에 도척을 만났는데, 공자는 한껏 도척을 칭찬하였지만, 도척은 칼자루를 만지며 "내가 말하는 것이 내 뜻에 맞으면 살아남을 것이고 내 뜻에 거슬리면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질렀다. 놀란 공자는 한달음에 그곳을 빠져나와 수레에 올랐지만 고삐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고, 얼굴은 잿빛이 되었다. 돌아오는 길에 만난 유하계가 "혹 도척을 만나고 온 것은 아닌가?" 라고 묻자, 공자는 탄식하면서 "나는 이른바 병도 없이 스스로 뜸질을 한 격이네(丘所謂無病而自灸也)."라고 하였다. (莊子) 공자의 예교주의(禮敎主義)를 노장(老莊)의 입장에서 비판한 이야기이다.

<한예원(韓藝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